

**2020년 3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 CFO 명형국 부사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사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3분기 BNK금융그룹 경영실적에 대해 실적발표자료의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2020년 3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기 둔화 속에 2020년 3분기 누적 그룹 당기순이익은 4,4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대응 관련 선제적 충당금 970억원 제외 시, 전년동기 대비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2020년 3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1,3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1.2% 감소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이자부문의익은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마진 하락에 전년동기대비 382억원, 2.3% 감소하였으나,

수수료부문의익은 IB부문 활성화에 따른 PF수수료 이익 증가와 금융 시장 안정화로 인한 투자증권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이익 확대에 전년동기대비 43.9%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 누적 그룹 판매관리비는 상반기 부산은행 희망퇴직 등 일회성 요인과 투자증권 성과급 증가에 전년동기대비 641억원, 6.8% 증가하였으나, 일회성 요인 제외 시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이 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그룹 대손상각비는 3,2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0억원 15.3%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부실여신 감소 영향에 건전성 지표는 큰 폭 개선되었으나, 코로나에 따른 향후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3분기 누적 기준 약 97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열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3분기 누적 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코로나 관련 선제적 충당금 영향에 전년동기대비 21.7% 감소하였으나,

비은행부문은 캐피탈 및 투자증권 실적 개선에 힘입어 23.6% 증가한 1,19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부산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5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6% 감소하였습니다.

PF수수료 이익 증가에도 순이자마진 감소와 코로나 대응 충당금 적립에 순이익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판매관리비 기저효과 및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감안 추가 충당금 제외 시 분기 실적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경남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부문 이익 증가 및 판관비 감소 불구, 이자이익 감소와 대출채권 매각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캐피탈은 자산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및 PF수수료 증가에 전년 동기대비 순이익이 7.4%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증권은 판관비 증가 및 중국 ABCP 관련 추가 평가손 50억원 반영에도 IB, 주식/파생수수료 및 유가증권 평가익 증가에 전년 동기대비 순이익이 89.0%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성

3분기 그룹 NIM은 1.82%로 전분기 대비 4bp 하락하였습니다.

2분기 은행 NIM은 부산은행의 경우, 1.84%로 핵심예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 등에 전분기대비 4bp 하락하였으며,

경남은행은 1.78%로 시장금리 하락세 둔화 불구, 예대금리차 축소 및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도래 감소에 전분기 대비 5bp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마무리되는 3분기를 저점으로 핵심예금 증가를 통한 조달비용 개선 등 마진방어 노력에 4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3분기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분기대비 2.5%, 전년말대비 4.2%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전분기대비 1.7%, 전년말대비 6.5% 성장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상반기 거액 집단대출 만기 상환 불구, 주담대 활성화 영향에 전분기대비 4.9%, 전년말대비 1.5% 성장하였습니다.

3분기 경남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분기대비 3.0%, 전년말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 지원 중소기업 대출과 PF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전분기대비 1.9%, 전년말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중도금 집단대출 신규 유치와 신용대출 증가에 전분기 대비 5.3%, 전년말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3분기 그룹 NPL비율은 0.94%로 지역 부도/도산 감소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에 전분기대비 11bp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 NPL비율은 0.80%로 전분기대비 16bp 하락한 반면,

경남은행은 NPL비율은 0.92%로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2bp 상승하였습니다.

3분기 그룹 연체율은 0.61%로 부실채권 매/상각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전분기대비 16bp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0.50%, 0.60%로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에 전분기 대비 각각 18bp, 7bp 하락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그룹 대손충당금전입액은 3,236억원으로 지역 부실여신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선제적 충당금 적립 확대에 전년 동기대비 430억원, 15.5% 증가하였으며, 그룹 Credit Cost도 50bp 로 전년동기 대비 4bp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 그룹 BIS비율은 13.45%로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에 전년말대비 50bp 상승했으며,

보통주자본비율도 10.25%로 전년말대비 71bp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과 관련하여 보통주자본비율은 99bps 상승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현황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독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기존의 분할승인 대신 내년쯤 일괄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 완료 시 2021년에는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이 1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본비율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환원 정책과 배당성향 상향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독당국의 배당자제 권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적합한 배당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